

칸(Khan), 전설의 시작 그리고 발자취

이 자리의 칸을 있게 한 분들에게 감사하며

무주고 토론 논술 동아리 '칸(Khan)'은 2010년 3월 설립되어 올해로 11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칸의 창시자인 김영호 선생님(전주여고)과 2011~2013년도에 칸에서 활동한 이소연 선배님을 인터뷰했다.

Q. 지고스계 부학도입니다.
김영호 선생님: 무주고 최고의 동아리 칸(Khan)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까지 여러 분과 칸에서 함께 활동하다 지금은 전주여고로 자리를 옮긴 김영호입니다. 지도교사와 동아리 회원으로 인연을 맺었던 2, 3학년 학생들은 물론 무주중에서 저에게 국어를 배운 1학년 신입생들도 대부분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비록 지면을 통해서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소연 선배님: 무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한 해인 2011년도부터 졸업 전인 2013년까지 동아리 '칸'에서 활동했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졸업한 지가 꽤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기 조금 민망하기도 하네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많은 이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다. 이제는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의 경험과 추억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동아리 '칸'에서는 1학년 때부터 부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토론을 잘했던 2학년 선배와 같은 반 친구, 그리고 당시 동아리 지도 교사이셨던 김영호 선생님을 따라 저녁 시간에 모여 '칸'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영호 선생님: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수업이 많은 동아리를 지도해왔지만, 동아리 칸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2010년 무주고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심성도 급고된 지 열심히 하는데, 조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토론회였고, 국어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에도 토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무주고 토론 동아리 '칸(Khan)'이었습니다.

Q. 당시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영호 선생님: 5년 동안 '칸(Khan)'을 운영하면서 참으로 많은 추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 아이들과 기차를 타고 1박 2일 서울 탐방을 다녀온 일, 부원에 있는 전라북도 해양수련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펼쳐진 전북 고등학교 토론회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일, 또한 매년 교내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토론회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했던 일 등 일일이 토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주고에 입학한 아들이 '칸(Khan)'의 부장을 맡아 동아리를 잘 이끌어 가는 모습도 대견하고 기쁠 것입니다.

이소연 선배님: 1학년 때, 친구와 조를 이루어 토론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학년 선배와 맞붙는 토론회였는데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

감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 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고차 질의, 반박 과정에서 말이 꼬이며 실수가 계속됐고, 결과는 당연히 패배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열심히 준비해준 같은 조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친구에게 거듭 사과를 했는데, 자기도 속상했을 테고 당시에는 별로 진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제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 친구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게 '칸' 활동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Q. 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과 그 점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소연 선배님: 정기적으로 토론회했던 경험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다 보니 논리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어 '국어'라는 과목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교육과에 입학한 후 토론을 할 때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재 선생님의 역할로 학생들에게 국어와 토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격이 임시에, 교우관계에 고민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요. 아까 제 소개에 적었던 대로 저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를 했는데, 이것은 제고등학교 생활에, 그리고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목적으로든 다양한 동아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하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 다. 불확실한 미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를 꼭 즐기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후회 없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꼭 보람차진 알더라도 돌아왔을 때 기억나는 일이 몇 개쯤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길 바라요.

Q. 마지막으로 제 2회 칸 동아리 신문 발행을 위해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선생님: 이렇게 소중한 동아리 칸이 어느덧 11년째를 맞이했고, 동아리 신문을 발간한다고 하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칸이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아리신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주고 고 2의 동아리 칸이여 영원하라!
이소연 선배님: 먼저, 동아리 '칸'의 신문 발행을 축하합니다! 처음 인터뷰 연락을 받았을 때, 씩씩해서 놀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활동하던 '칸'이 신문을 발행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탄탄하게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어서 부럽습니다. 동아리를 잘 이끌어준 후배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학생들의 주도하에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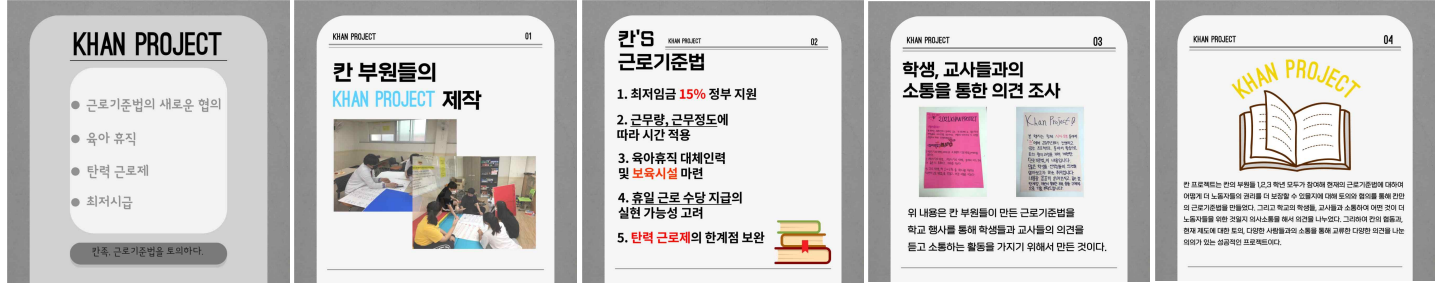
배유빈, 허진호 기자



무주고등학교 동아리 칸(Khan)이 제 2호 동아리 신문 발행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칸의 부원들은 칸의 K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를 하고 있다.

칸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다

칸's 근로기준법 제안과 학교 행사를 통한 소통 - 카드뉴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칸은 직접 제안한 근로기준법을 학교 반디랑 앞에서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무주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노동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칸 동아리 부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모여라!

칸과 함께

고품격 토론 동아리 칸

- 다양한 주제 토론
- 모의유엔
- 진로와 관련 발표
- 행복한 분위기!

토론과 발표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은?

저의 '칸'이 기다립니다

가입문의 2-2 배유빈에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

칸 동아리 부원들이 '투표 가능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더 깊이, 더 넓게! 칸 자유 탐구 발표

각자의 진로 관련 주제로 탐구 발표 진행

지난 9월 8일, 시사토론 동아리 칸에서는 자유 주제 탐구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저마다 관심 있는 시사 주제를 정해서 조사 및 탐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었다. 각각 조사한 길이 있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칸 동아리 부원의 자유 탐구 활동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다.

무주고 2학년 백건일 학생
Q. 자유 탐구 주제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자유 탐구 주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이러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Q. 주제 탐구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매우 복잡하여 주제 탐구 발표

과정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동아리 칸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2010년 무주고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심성도 급고된 지 열심히 하는데, 조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토론회였고, 국어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에도 토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무주고 토론 동아리 '칸(Khan)'이었습니다.

Q. 자유 주제 탐구 발표를 마치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이 관심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 유익했었고,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굉장히 가치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만나 볼 주제는 무주고 2학년 배유빈 학생의 '동양인 혐오와 오리엔탈리즘'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지우 기자

칸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해!”

코로나 19, 고교학점제, 누리호 발사

무주고등학교 시사토론 동아리 '칸'에서 2021년 10월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을 선정해 이 사건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 보는 코너를 만들었다. 오늘날 가장 큰 이슈를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나 우리의 생각을 담아 볼으로써 시사토론 동아리인 '칸'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모두 보여준다.

2022 누리호 발사 성공

지난 28일 누리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을 성공했다. 누리호는 28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이번 발사는 1차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비행하였다. 8월에는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 고교학점제

지난 2일 고교학점제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2024 코로나 종식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오스, 덴마크 등을 이어 15번째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당장 내일부터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지난 4년간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다.



칸의 부원들이 진로와 관련된 자유 탐구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홍지원 기자

백신, 보약인가 독약인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찬성 vs 반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시사토론 동아리 칸에서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을 사용해 '코로나 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다음 기사는 토론의 근거를 토대로 긍정적 입장(찬성), 부정적 입장(반대)의 양측에서 작성한 가상 기사이다.

찬성 측 (긍정적 입장)

코로나 19가 드디어 백신의 실마리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 후에 임상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에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으로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76%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 실험은 무려 3만 2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65세 이상의 임상실험이 있다. 65세 이상의 임상실험은 80%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중증 환자에게는 100%에 달하는 뛰어난 예방 효과를 보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들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5~20달러이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5달러로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든다.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유통기간이 짧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적인 냉장 온도 2~8도씨에서 최대 반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렇듯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 인체에 강력한 예방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 (부정적 입장)

우리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국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외국에서 임상 실험 미흡과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알려진 백신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는 혈전 문제와 있다. 참고로 혈전은 피가 비정상적으로 응고되는 현상이다. 혈전이 주요 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국내에서 뇌경색혈전증이 생겼는

데, 영국에서는 2000만건 중 79건, 유럽에서는 3400만건 중 169건이 보고되었다. 수십 만분의 1의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백신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치명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미만 접종으로 제한되었다. 연령 제한을 65세 미만으로 설정했던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속이 제출한 고령층 임상시험 결과 자료와 효능을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였다. 임상시험이 미흡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작정 외국의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놓이는 방안은 국민과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정부는 조속히 다른 백신의 대안을 찾거나 국민들이 백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 임상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서빈 기자

청소년도 투표를 통해 정치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투표 가능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무주고등학교 시사토론 동아리 칸은 지난 4월 7일, '투표 연령 하향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성 측(4)과 반대 측(4)으로 나누어 자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의 논제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찬성 측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찬성 측 입론을 맡은 1학년 홍지원 학생은 "많은 정책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에 비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감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순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고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령 인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 측은 '만 19세 미만

의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찬성 측 입론을 맡은 2학년 이준혁 학생은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교육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고 교실은 정치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근거를 밝히며 투표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 이후 계속된 공방이 이어졌으며, 두 편 모두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비판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찬반양론이 오가며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면서도 질타와 형식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기에 토론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자체에 대한 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여운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사적인 현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시도 해본다는 점에서, '시사 토론 동아리'라는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볼 수 있다.

윤진영, 허진호 기자

제 2회 칸 모의UN,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해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처 방안



칸이 모의 UN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칸에서 모의 유엔 활동을 진행하였다. 작년 제 1회 모의 유엔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보완하여 이번엔 새롭게 준비한 '제 2회 칸 모의 유엔'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토론을 위주의 활동을 진행했던 칸에 '모의 유엔'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에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마련했다. 칸 모의 유엔의 8개 국가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자국의 대책, 정책 등에 대하여 기초 연설문을 발표하였다. 기초 연설문을 발표한 뒤 각국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 중에는, 한국의 경우나 다른 나라의 이슈가 도입되어 환경보조에 앞서겠다

는 의지를 보였으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로터 세일 기술을 전수해주시기로 했다. 인도도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대기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는 자국의 공장을 문을 닫기로 결정하여 기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환경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공급하는 대신 전기 자동차의 발전을 돕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하였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결의안의 사본을 통해 알 수 있다. 8개 국가는 모두 기후 변화 관련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8개국은 각자의 국가와 협의를 결성하여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그들은 각국에 주장한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모의 유엔 결의안을 작성하는 것을 끝으로 하여, 제 2회 칸 모의 유엔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부원 00명은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모든 공동체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각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개인 모두의 문제이다. 지구촌 공동체들의 협력으로 더 이상의 끔찍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이다. 칸 모의 유엔의 결의안처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발 벗고 나서 준다면 더 이상 기후 변화로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도 진행하게 될 칸 모의 유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권서진, 백건일 기자